

백두대간 종주 제8보

<본격적인 하반기 백두대간을 시작하면서>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제14구간> 경북 상주에서 충북 괴산으로 통하는 992번 지방도의 늘재에서 대야산을 지나 문경가운데에서 괴산 청천으로 이어지는 버리미기재까지 19km

- * 일시, 소요시간 : 2003. 9. 14(일) 03:20~13:17(10시간)
- * 종주코스 : 늘재~청화산~조항산~대야산~버리미기재(19Km)

태풍 "매미"의 엄청난 위력을 말해주는 전국의 피해 상황을 언론을 통해 보고 들으면서 우리 주위의 피해는 미미한 것에 감사하고, 하루만 태풍이 늦게 왔어도 대간 종주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이번 태풍으로 운명을 달리한 분 및 수재를 당하신 분께 미안한 마음을 보내고 피해 복구가 빨리 되기를 기원하면서 동대문운동장 8번 출구 항상 그 자리를 향하여 9월 13일 토요일 밤 9시40분 범계역 그 자리에서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9월 14일의 대간종주는 추석 연휴 기간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대간종주 계획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바꿀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어렵게 결정되었고, 당일 출석율은 97% 3명의 불참자를 기록하면서 모두 참석하였다.

오늘도 우리를 태운 고려관광버스는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고 안성IC를 빠져 나와 새벽 3시 오늘의 시점인 늘재에 도착하여 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달이 보인다. 날씨는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의 바람이 분다. 3시 30분 출발할 것이라는 이구 대장님의 선언에 따라 부지런히 움직여 준비 완료하니 3시17분, 대원들의 성화에 못이겨 출발 신호를 하달하고 대간 마루금을 올라가기 시작한다. 고도표와 자료를 검토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오르막이 시작되면서 선두와 후미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산행 시작 30여분이 지나면서 안개가 가는 길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선두는 3명이 되었고, 사천왕도 어디쯤 오고 있는 지 알 수도 없다. 4시20분 오늘의 처음 고지인 청화산 정상에 도착하니 안개는 더욱 심해져 2m 전방의 앞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내 생애 이렇게 지독한 안개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청화산을 기점으로 상주에서 문경과

괴산 접경을 지나가게 되고 안개와의 힘든 싸움으로 길을 찾는 데 시간을 소요하게 되면서 이젠 선두 그룹도 뿔뿔이 흩어져 나 혼자 안개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저인”이라고 불러 보아도 대답도 없고 내 목소리는 안개속에 묻혀 메아리도 없다. 그래도 렌턴 하나에 의지하여 지도를 차근 차근 보면서 전진하기를 3시간 갖바위재에 도착하여 나무에 그려진 등산로를 확인하니 안심이 되고 앞으로 나아 갈 방향이 선명해진다. 안개는 아직도 내 시야를 방해하고 있고, 어느 때는 헤드렌턴의 불빛이 바위속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 눈이 어쩔 어쩔하고 머리가 어지럽다. 암릉지대를 힘겹게 올라가니 조항산 표시가 보이고 시계는 6시 40분을 가리킨다. 우선 목을 축이고 베지밀로 고른 배를 달래며 뒤에 오는 사천왕 멤버들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사천왕 멤버들은 오지 않고 천안탐 4명이 먼저 올라 오길래 사천왕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 보니 중간 그룹을 인도하여 오느라 사천왕 멤버들이 조금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하길래 기다리기를 30분지나 사천왕 멤버가 다 모였다. 조항산 도착을 기념하는 증명사진을 찍고 아직도 갈길을 방해하는 안개속을 헤치고 고모치를 향하여 하산을 시작한다. 7시 45분 고모치에 도착하여 오늘의 만찬을 위하여 부산하게 배낭을 열고 먹거리를 준비한다. 오늘의 만찬메뉴는 김밥, 콩밥, 감치, 소세지 튀김, 이파두주, 포도주, 소주 등으로 산행중에 필요한 칼로리를 보충하기에 충분한 음식들이다. 이젠 따뜻한 국물이 필요한 때가 다가오는구나 생각하고 다음에는 국거리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로 국을 대신하여 아침을 마친다. 고모치를 조

금 지나면서 부터는 암릉지대가 나오면서 집채바위, 고래바위 등으로 불리워지는 바위 들이 연속적으로 이어 지면서 산행을 지연시킨다. 넓적한 바위가 나오면 쉬면서 사진을 찍느라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대야산 정상을 앞두고 이어지는 암릉 구간은 대야산이라는 이름의 이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대야산 정상에 서니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안개는 이제 거의 걷히고 대야산의 전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침 식사중에 우리를 추월하여 먼저온 탐들이 대야산에서 길을 잘못가고 있어 대간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면서 나침반의 위력을 느끼게 한다.

대야산을 지나면서 산길은 경사도 급해지고 암릉 구간도 많아 지면서 피곤에 지친 산 나그네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도 아차 하는 순간에 발아래로 작은 돌맹이가 물리면서 뒤로 넘어지곤 한다. 이때 배낭이 받쳐 주지 않는다면 엉덩이며 허리가 다치기 쉽다는 것을 배낭을 지고 넘어져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배낭이 단순히 의류나 등산용품만 넣고 다니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님을 새삼 알리고 싶으며, 산에 갈 때는 꼭 배낭에 여분의 옷가지, 물통 등을 넣어 가지고 갈 것을 권한다. 급경사 길을 조심조심 내려오기 30분 문경사에서 세운 촛대봉 팻말이 보이고 이제 급한 암릉 구간은 지나갔다는 기분에 걸음이 가볍다. 11시 40분 촛대봉에서 얼마 남지 않아 오늘의 산행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아 있는 맥주로 목을 축이고 폼넘이봉을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13시 17분 오늘의 종점인 버리미기재에 도착하니 용추계곡 주차장 음식점에서 나온 차가 대기하고 있어 30분 아스팔트 보행은 5분의 승차로 바뀌어 다행

이라고 생각해본다.

용추계곡 주차장에 도착하니 먼저 온 천안팀이 LG의 구씨 가문에 납품하는 삼겹살이라고 하면서 불판 위에서 맛을 들이고, 옆에는 김치찌개가 열심히 끓고 있어 우선 뜨거운 국물로 배를 달래면서 오늘의 산행을 머리속으로 정리해본다. 식사후 후미 그룹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멀리 않은 곳의 용추계곡을 답사한 후 16시에 서울로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서울고려관광은 힘차게 움직이고 파곤에 지친 몸은 휴식을 부른다. 20시15분 강남역, 21시 범계역 도착 오늘의 일정을 마감한다.

<제15구간>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으로 통하는 913번 지방도의 버리미기재에서 3번 국도 문경과 괴산을 잇는 이화령까지 33km

* 일시, 소요시간 : 2003. 9. 28(일) 03:00~17:00(14시간)

* 종주코스 : 버리미기재 - 장성봉 - 은치재 - 지름티재 - 회양산 - 이만봉 - 사다리재 - 백화산 - 황악산 - 이화령

오늘은 4째주 토요일 아침부터 근육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기운을 몸으로 느낀다. 특히 이번 구간은 2개의 구간을 합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날씨가 변수이기에 더욱 신경이 가는 날이다. 2003년 9월 27일 토요일 저녁 오늘도 저녁 9시 40분 전철역을 향하여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긴다.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약간은 살살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기분좋은 저녁 날씨이다. 10시 40분 동대문운동장역에 도착하니 버스는 없고 백두대간 종주대원들만 옹기종기 모여 있다. 도로변 정차를 단속하여 버스가 다른 장소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올 것이라는 막내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떡이며 사천왕 멤버들을 찾으니 어둠속에서 나를 반기는 목소리들이 있다. 오늘도 4명 전원 참석 일주일간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의 산행계획을 이야기면서 날씨가 지금 같이 좋기를 다같이 빌려본다. 11시 서울고려관광 버스에 몸을 싣고 이구대장님의 산행 구간에 대한 설명에 귀 기울이며 내일의 산행 작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버스 엔진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한다. 9월 28일 새벽 2시 40분 2주전에 내려 왔던 버리미기재에 도착하니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있는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 우리를 반긴다. 다시 한번 이번 산행에서 주의 할 구간의 설명을 듣고 헤드랜턴에 의지하여 새벽 산의 적막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풀리운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긴다. 새벽 4시 첫 번째 주의 구간인 장성봉(915m) 직전 갈림길에 도착하고 서로의 위치를 알려 주면서 안개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능선길을 더듬어 나아간다. 여명이 밝아 오면서 저 멀리 악회봉이 안개비에 섞여 자태를 나타내고, 지금 오지 않으면 오기 힘든 곳이라는 가이드의 말에 따라 대간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악회봉을 향하여 사천왕은 걸음을 재촉한다. 6시 10분 악회봉(845m)에 도착하니 안개만이 우리를 반기고 주위는 고요속에 잠겨있다. 위안이라면 악회봉 바로 밑에 말없이 서있는 선바위의 웅장한 모습이 악회봉을 답사한 보람을 느끼게 한다. 악회봉에서 막걸리로 서운

한 감정을 달래고 증명사진을 찍고는 앞서간 대원들을 쫓아 가기 위하여 발걸음을 재촉한다. 악취봉을 벗어나면서 암릉과 암반지대를 조심스럽게 내려 오니 은치재가 우리를 반기고 이젠 안개비도 태양의 힘에 밀려 저만치 물러가 버렸다. 은치재에서 우선 숨을 한번 고르고 배가 고프니 아침을 먹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오늘의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구왕봉에서 아침 만찬을 열기로 하고 허기진 배를 물로 달래며 구왕봉을 향하여 전진한다. 8시 8분 구왕봉에 도착하니 넓적한 바위 위에 먼저 온 팀에서 자리를 잡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기에 사천왕도 바위 한쪽을 분양받아 일용할 양식을 펼쳐놓고 손님을 모으면서 딱딱한 김밥 한 조각을 보약 먹듯이 조심조심 먹으며 다음 산행 구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본다. 구왕봉에서 지름티재로 내려오니 회양산 주위가 조계종의 터로 스님들이 수도하는 봉암사와 가깝다고 하여 대간 길을 막아 놓은 나무와 나이롱 끈을 우회하여 지나가려니 웬지 씩씩한 기분이 든다. 대간을 종주하는 산 사나이들은 어떡하든 이 길을 갈려고 할 것인 데 줄에 매달아 놓은 “수도 중이오니 조용히 해 달라”는 팻말은 “우리 땅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고맙게 여기 라는 스님들의 배려에 고맙게 생각하라”는 과시용으로 보여 더욱 기분을 상하게 하고 종교의 횡포로 느껴지기도 한다. 개인 땅을 지나 가는 서러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각도가 있는 고개마루를 열심히 올라가 회양산(998m)에 도착하니 팻말하나 없고 어디에도 회양산이라는 표시가 없다. 대간 길 막아 놓은 나무 하나 뽑아 와서 회양산 정상 팻말 하나 만들면 벽면수행 100일 보다 수행이 잘 될 것이라는 너스레로 기분을 풀어본다. 정상 팻말

없는 회양상을 뒤로하고 회양산성을 끼고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는 다리를 달래며 이만봉을 향하여 배너미 평전의 갈대밭에서 사진을 찍고 움직이기를 40여분 이만봉(989m)이 나타나고 시계는 12시를 지나가기 시작한다. 산행 시작 9시간이 지났다. 이제부터는 체력보다는 정신력으로 나아가야하는 힘겨운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 사천왕도 흩어져 나와 증장천왕이 앞으로 나아가고 지국천왕과 다문천왕이 뒤로 쳐져 이젠 이분되었다. 사다리재를 지나면서 증장천왕이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뒤로 쳐지면서 이젠 나홀로 산행이 시작되었다. 981봉을 백화산인줄 알고 올라 가보니 저 멀리 백화산(1,053m)이 보인다. 힘겹게 또 한 봉우리를 올라가니 평전치로 아직도 저만큼에서 백화산이 어서 오라고 하지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기가 지면서 지꾸만 쉬어가라고 붙잡길래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다문천왕을 불러 세워 남겨둔 김밥과 소주로 요기를 하고 힘을 내어본다. 시계는 오후 2시 20분이 지나가고 먼저 간 증장천왕이 기다리는 백화산을 향하여 마지막 힘을 내어본다. 백화산 정상에 올라서니 증장천왕이 동네사람 다 모아 놓고 술판을 벌여놓았다.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시작했다나. 아직도 갈길이 먼데 걱정이 되지만 이제 하산 길만 남았으니 남아 있는 소주랑 맥주로 백화산 정상 만찬을 하면서 뒤에 오는 지국천왕과 다문천왕을 기다린다. 역새발을 지나 황학산(910m)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증명사진을 찍고 부지런히 이화령을 향하여 발걸음을 움직인다. 황학산에서 이화령으로 하산하는 길은 전나무 등 자연림으로 이어진 오솔길로 나무에서 뺏어져 나오는 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기분좋은 느낌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준다. 어쩌면 이런 기분 때문에 힘들고 지겨운 산행을 계속하는 지도 모른다고 자위해 본다. 조봉 가까이오니 지름티재에서 탈출한 동대문사단에서 용원을 나왔다면서 얼음물을 가지고 우리를 반겨준다. 이젠 20분만 가면 이화령휴게소라고 하면서 기운내라고 한다. 동대문사단은 10월 4일날 지름티재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천왕의 단결된 산행을 부러워한다. 이화령에 도착하니 탈출한 대원들과 먼저온 몇 명이 김치찌개에 소주를 곁들이며 우리의 완주를 박수로 맞이하니 오늘의 산행이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실감이 난다.

● 대간길에 있는 사적지

○ 대야산과 응추계곡 · 선유동

선유동(仙遊洞)이라면 누구든 충북 괴산군의 선유동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문경에도 선유동이 있다. 고산자(古山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선유동(內仙遊洞)이라고 대야산 밑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백두대간이 지리산까지 뻗어내리는 도중 대야산에 이르러 양쪽에 선유동을 만들어놓아 수많은 시인묵객과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서쪽편이 괴산 선유동이고, 동쪽편이 문경 선유동인 것이다.

가은읍 완장리에는 조선초 숙종때 학자인 이재(李穡)를 기리기 위하여 1906년 세운 정자인 학천정(鶴泉亭) 앞 큰 바위에 선유동문(仙遊洞門)이라 문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여기서부터 선유구곡(仙遊

九曲)을 찾아보면 옥석대(玉瀉臺), 난생뢰(鸞笙瀨), 영차석(靈차石), 옥하대(玉霞臺)라는 음각한 글씨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신라시대의 고운 최치원의 글씨라 전하며 그 세월의 흐름 속에 옛 선인들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다.

○ 구산선문 회양산 봉암사

회양산(998m)은 멀리 어디서 보아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암봉이 수려한 산이다. 특히 회양산 자락에 들어앉은 봉암사의 그 유명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회양산 기슭에 자리잡은 봉암사는 신라 헌덕왕 5년(879년) 지증대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전하기를, 지증대사(智證大師)가 심충(深忠)이란 사람의 권유로 현 봉암사 자리를 대찰 자리로 정하고 그 자리에 있던 큰 못을 흙으로 메우려 하는데, 큰 용(龍)이 살고 있는지라 신통력으로 그 용을 구룡봉(九龍峰)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 봉암사를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백운곡(白雲谷)에 계암(鷄岩)이라는 바위가 있었는데 봉암사를 세울 당시 날마다 그 바위 위에서 닭 한 마리가 새벽을 알렸다고 한다. 그로 인해 절 이름을 봉암사라고 부른다 한다.

그후 지증대사의 문손(門孫)들이 대사의 뒤를 이어 중수하여 웅장하고 예술의 극치를 다한 건물이 즐비했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중창 80년 후 극락전 한 동만 남기고 전소되고 말았다 한다.

그후 고려 초에 정진국사(靜眞國師)가 주석하게 되어 중창하여 옛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극락전은 목

탑형으로 건조된 건물로서 경순왕이 피란 때 원당(願堂)으로 세운 유서 깊은 전각이라고 전한다.

중간 사적은 기록을 전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여러 번 중수를 거듭하였다. 순종 원년(1907년)에도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되었으며 1956년 4월7일에도 큰 화재로 소실되었다.

봉암사는 신라 구산선문 중 하나로 많은 고승대덕이 배출한 유서 깊은 사찰이어서 한때 폐사 위기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중창을 거듭해 옛모습을 되찾고, 많은 수도승이 운집하여 수도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대가람 중수 불사가 몇 년째 계속되어 1992년 6월4일에는 대웅보전이 완성되었다. 대웅보전은 108평의 웅장한 건물이며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세지보살 등 삼존불을 모시고, 목각탱화 또한 뛰어난 솜씨의 수작으로 매우 장엄하다.

○ 백운대 마애불

봉암사에서 계곡을 따라 700m쯤 올라가면 맑은 물이 거대한 암반 기암괴석을 휘감아 돌며 크고 작은 폭포와 소를 만들고 이어 금강산 만폭대(萬瀑臺)와 어깨를 겨룬다는 백운대(白雲臺)가 나타난다.

이 백운대 북동쪽 거대한 바위에는 보살좌상이 양각되어 있어 분위기를 한층 신비스럽게 한다. 고려 때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4.5m, 폭 4.4m 규모의 마애보살좌상은 머리 부분을 깊게 파내어 감실(龕室) 처리하여 광배(光背)를 겸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선각(線刻)으로 얇게 처리하였으며, 보관(寶冠) 중앙에 연화문이 있다.

미간백호(眉間白毫)가 뚜렷하며 눈썹은 반달형이요, 눈은 얇게 뜨고, 코끝이 약간 손상되었으나 귀는 어깨에 닿을 만큼 길고, 턱도 잘 처리되었으며 삼도(三道)가 뚜렷한 불상이다.

이 보살상은 ‘관세음보살상’이라 음각된 비명이 있으나 천년풍상에 마멸되어 다른 내용은 읽을 수 없고, <희양구지(曦陽舊誌)>에 실려 있을 따름인데, 환적 의천선사(幻寂 義天禪師)의 원불이라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쉽게도 이 비경과 마애불은 봉암사의 통제로 일반인들은 직접 보기가 어렵다.

○ 야유암의 새김글씨

봉암사 입구, 버스주차장 너럭바위 아래쪽 단면에는 문짝만한 크기로 ‘夜遊岩(야유암)’이라 새겨 놓은 글씨가 있고, 그 위에는 ‘取適臺(취적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또 개울 건너편 마을쪽에는 ‘高山流水明月清風(고산유수명월청풍)’이라는 해서체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모두가 모두 최치원의 글씨라 전해지고 있다.

○ 신작로 이화령

현재 3번 국도가 지나는 이화령은 추풍령과 죽령 사이의 큰 고개로 옛날 이우리고개라고 하였으나 1925년 신작로가 개통되면서 이화령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문경새재가 여기인 줄 알고 있다. 아무튼 이 고개는 백두대간 종주의 중요한 기점이기도 한데, 현재 터널공사가 한창이다.

